NAVER 공연 live
온라인 팬미팅

CREDIA STAR SHIP

집/들/이/합/니/다

NSQG 스튜디오

테너 존 노

2020.10.07 (수) 8PM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PROGRAM

Dein ist mein ganzes Herz! - 존노, 조영훈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작사: Fritz Lohner-Beda / 작곡: Franz Lehar)

Piano Man - 존노, 조영훈

(작사,작곡: Billy Joel)

I'm Yours - 존노, 박현수

(작사,작곡: Jason Mraz)

Be my love - 존노, 조영훈

(작사: Sammy Cahn / 작곡: Nicholas Brodszky)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존노, 조영훈

(작사: 김효근 *푸쉬킨의 시 번안 / 작곡: 김효근)

The Prayer - 존노, 전지영

(작사,작곡: Carole Bayer Sager, David Foster)

West side Story 중 Maria - 존노, 조영훈

(작사: Stephen Sondheim / 작곡: Leonard Bernstein)

PROFILE

테너 존 노 Tenor John Noh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는 테너 존노는 세계적인 오페라전문 잡지 <Opera News>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다. 존노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를 수석졸업하고,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졸업과 동시에 카네기홀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하였으며,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는 한편 예일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오페라 가수로서 지난 5년간 20개 이상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고 대표적으로는 MetLiveArts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에 출연하여 오페라 유망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존노는 카네기홀 아이작 스턴 오디토리엄 (Issac Stern Auditorium), 뉴욕 머킨홀, 뉴욕 링컨센터, 앨리스 털리 홀, 브룩클린 National Sawdust 등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연과 연주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와 함께 <몬테베르디의 책>을 노래했다.

오라토리오 가수로서 미국 최초의 성당인 <바실리카 성당> 225주년 음악회에서 모차르트 C단조 <대미사> 솔리스트로 시작해, 로씨니 <작은 장엄 미사>, 헨델 <메시아>, 바흐<마태 수난곡> <마그니피카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등 오라토리오 가수로서 커리어를 쌓아갔다. 대표적으로 1906년부터 있었던 뉴욕의 역사적인 합창단인 The Cecilia Chorus of New York 와 카네기홀에서 모차르트 레퀴엠 테너 솔리스트로 "중창과 솔로파트에서 모두 아름다웠다" 라는 극찬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채널인 Medici.tv 와 줄리어드가 합작한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에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음악감독인 야닉 네제 세겐과 지휘자 엠마누엘 비욤 에게서 마스터 클래스를 받았다. 그는 또한 파비오 루이지, 앨런 길버트, 마릴린 혼, 닐 쉬코프, 앨런 헬드, 패트리샤 라세트 등 거장들의 마스터 클래스를 가졌다. 카네기홀에서 주관하는 가곡전문 프로그램인 The Song Continues 시리즈에 출연하였다.

존노는 최근 인기리에 마친 <팬텀싱어 3>에 참가하며 '천재 테너'로 불렸으며, 그가 소속된 팀 '라비던스'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팬텀싱어 3>를 통해 존노는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훌륭히 소화해 내며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사회자 & 바리톤 박현수 Baritone Hyunsoo Park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박현수는, 전공인 성악을 베이스로 하여 팝,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캐릭터이다. 그는 발성이나 창법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누구와도 안정적인 하모니를 만드는 크로스오버계의 징검다리 바리톤이다.

JTBC 팬텀싱어3 파이널리스트 '레떼아모르'의 멤버로 활동 중이며, 또한 유튜브채널 '현수박수박수쳐' 를 통하여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서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고있다.

피아니스트 조영훈 Pianist Young Hun Cho

피아니스트 조영훈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회 한국 리스트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하여 특전으로 헝가리 리스트 아카데미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수학하였다.

조영훈은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임버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헝가리 리스트 뮤지엄 연주홀 등에서 리사이틀 및 독주 무대를 가졌다. 2006년에는 미국 뉴욕 헌터에서 열린 Amati Music Festival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뉴욕 Steinway Hall에서 독주 무대를 가졌으며 이는 뉴욕 클래식 라디오 채널 WQXR에 소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음악 장르의 연주를 보여주는 '피아니스트 조영훈'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현재 한국 리스트협회(회장 황윤하) 총무, 아즈앙상블(ARZ Ensemble)의 멤버, 또한 밴드 폴리포닉 스케치(Polyphonic Sketch)의 멤버로서 활동 중이다.

CREDIA

CREDIA
MUSIC&ARTISTS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